

53. 마지막에 네 업을 누리리라.

2012. 12. 3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하루만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애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새 해를 복되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12:8~13]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삽나이까 9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12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1. 목사님, 오늘은 2012년도 마지막 강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7절에 기록된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인지 가르쳐준 계시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단12:7절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설명부터 말씀을 시작하셔야 하겠네요.

답: 우리가 12:7을 지난 시간에도 읽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읽고 말씀을 나누지요.

[단12: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은 가브리엘일 것이고 강물 위에 서 계신 분은 미가엘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장은 한글 킹제임스역에는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여 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역이 “다 깨어지면”이라고 번역한 것을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여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번역은 성도들의

권세가 북방왕의 세력에 의하여 깨어지는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마지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은 6절에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말입니다. 다 이룬다는 말은 예언된 기한이 끝난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그들이 성도의 권세를 다 깰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 세 때 반의 기간이 지나면 끝이 온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질문에 세 때 반이 지나면 끝나리라고 대답했으니 명확하지 않습니다.

2. 한 때 두 때 반은 다니엘 7:25에 처음 나오지요?(예)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운 열 뿔이 있는 짐승에서 열 뿔보다 나중에 작게 나와서 크게 된 그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지요?

답: 예, 맞습니다. 여기도 성도의 권세를 다 깰 때까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사건입니다. 애청자들께서 단7:25 사건을 상기하시면 좋습니다. 들은 때가 한 참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넷째 나라인 제국 로마가 망하고 그 영토 안에 게르만 민족이 10개의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럽 여러 나라들의 전신입니다. 그 나라들 중에 헤룰리, 반달, 동고트 종이 세운 나라는 이 작은 뿔에게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그 나머지 나라들은 이 작은 뿔의 세력에 복종하게 되었는데,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렇게 세 때 반, 곧 삼년 반 동안 전성기를 누리지요. 그것이 예언적으로 표상한 기간인데, 역사적으로는 1260년이라는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는 것을 강물 위에 계시는 분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로마 교구 감독이 모든 그리스도교회의 수장이라는 칙령이 실시된 538년부터라는 것을 그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폴레옹의 세력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서 옥사하게 된 1798년까지라는 것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명백합니다. 마지막 때는 1798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식도 더하고 교통도 빨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었고, 마침내 서민들도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도록 계몽이 되어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요. 이제는 중세 때처럼 교인들을 무지한 상태로 묶어둘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지식이 더해지고 봉한 다니엘서가 마침내 펴 놓은 책이 되는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3. 마지막 때가 왜 이렇게 오래갑니까? 마지막이면 그냥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한 때가 1798년이라면 지금이 2012년인데 214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그렇게 길어서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잖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마대24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마24: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세상 끝에 대하여 물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6~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시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끝이라는 말과 예수께서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신 끝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의 말은 ‘순텔레이아’이고 예수님이 하신 끝은 ‘텔로스’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재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시작이라는 말씀도 하였고, 14절에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오리라고 하셨는데, 여기 끝도 ‘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순텔레이아 끝이 있고, 텔로스 끝이 있습니다. 순텔레이아 끝은 시작이 있고 순텔레이아의 끝이 있습니다. 이 순텔레이아의 끝이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 때 반이 지나면서 순텔레이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순텔레이아 시대입니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텔로스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텔레이아가 시작 된지 목사님 말씀대로 214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4. 예, 끝이 단순히 끝이 아니고 끝 기간이 있고 그 끝 기간의 끝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직도 마지막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답: 그렇지요. 8절을 읽어보지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다시 한 번 읽도록 합시다.

[단12:8,9]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삽나이까 9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은 때에 대한 계시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여기서도 합니다. 10장 1절에서는 이 계시를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10장 14절에서 가브리엘은 깨닫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10장과 11장의 사건들을 다니엘은 깨닫고 분명히 알았다고 했으니 다니엘이 안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12장에 와서 때에 대한 계시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결국을 확실히 알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일은 다니엘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 때 반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될 일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다니엘은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인지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9절에 말한 대로 그것마저도 봉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그것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사실을 고백했을 때에 물위에 서 계시는 분은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달을는지에 대하여 계시하십니다.

5. 예, 그렇군요.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했네요.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답: 이 말씀은 시련의 기간 동안 연단을 받아 진리로 거룩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당할 긴 시련의 기간일지라도 그것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시련은 정결과 정확을 위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지혜의 배려가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특정한 시련의 기간만이 아니라 진리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바로 연단의 생활이 아납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금같이 나아올 것이며 어린양의 피에 희게 씻는 경험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 기간들은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으로 허락되었으며 정결케 되어 이 기간 후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된 자라는 약속이 담긴 예언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여기 “악한 자” 도덕적 악행 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보다는 종교적 악행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도덕성은 선하고 탁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고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오류를 진리인 것처럼 고집스럽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적으로 오류를 따라 믿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음 말씀이 이 사실을 확인해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는 말씀입니다. 곧 분별력이 있는 자, 통찰력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려는 정신을 가진 자들인데, 어떤 주장에 고집스럽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행 17:11)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6.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니까 여태 다니엘서에 보인 적이 없는 날짜가 나오네요. 이것도 연대 예언이겠는데, 이 새로운 연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답: 예, 참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선 11절~13절을 다시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단12:11~13]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12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 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기 새롭게 1290일이라는 기간이 나타납니다. 앞 구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지막 때가 되어야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대에 대한 것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때 까지 인지 묻는 것은 8장에 2300주야 때에도 있었지요. 그때도 다니엘은 연대에 대한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에 연대 문제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지혜 있는 자들이 깨들을 것이고 그들이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퍼 놓이게 되어서 깨달아지면 연대문제도 깨달아질 것이고 그것이 지혜 있는 자들로부터 배우는 사람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260일 곧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한 것은 이미 7장 25절에 나와서 바로 앞인 12:7절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260일보다 30일이 많은 1290일이 나타납니다. 물론 예언적 표상 연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1290년이 되지요.

이 연대를 바르게 알기 위하여 다니엘서 12:5절 이하의 성격을 바르게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면 이 날짜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바른 출발선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 이하의 성격을 모르면 연대에 대하여 오해를 예약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7. 단12:5절 이하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답: 이미 앞에서 설명했는데, 목사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청자들을 위하여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다니엘서는 12:4절에서 끝난 것이나 같지요. 그런데 5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설명해주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장면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지요. 다니엘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한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베포 자비의 장면입니다. 가브리엘은 언덕에 섰고 미가엘이신 그리스도께서 강물 위에 서서 대화합니다. 그 대화중에 세 때 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일이 있는 후에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봉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달을 것인데, 그 깨달을 때에 정확성을 위하여 다시 1290일이 제공됩니다. 이것은 세 때 반 기간의 끝이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제공된 보조 자료입니다. 이것이 세 때 반과 다른 독립된 연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마지막 때의 시점을 분명하게 지시하기 위하여 제시된 연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대 문제를 생각할 때 한 때 두 때 반 때와 상관없는 연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세 때 반의 끝과 관련하여 보조로 가르쳐주신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8. 예, 그렇군요. 그것을 명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90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답: 1260일의 끝이 언제인지는 이니 7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시작한 때는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로마교구 감독이 모든 기독교의 수장이라는 칙령이 시행되는 때부터라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538년이지요. 그래서 그 끝이 1798년이라는 것도 이미 확인했고 그때 피우스6세가 포로 되는 것으로 그 기간이 끝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1290일의 끝도 1260일의 끝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90일과 1260일의 끝이 같으니까 1290일은 30년 먼저 그 시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일이 있었는지 살피면 되지요. 그때 즉 508년에 그럴만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이 실현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508년 사건으로 이 칙령은 모든 기독교국에 속히 실현될 수 있는 칙령이 되었지요.

9. 그 사건이 무엇인데요?

답: 508년에 게르만 민족 중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Clovis, A.D. 466~511)가, 아리우스주의의 다른 게르만 민족인 동, 서고트족과 생사를 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권로마에 충성을 바침으로 로마교회가 강력한 정치적 세력을 업고 정치적 종교적 기반을 확고히 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A.D. 496년에 클로비스는 중부 라인강 지역의 알레마니(Alamani)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질피히(톨비악)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이 때 그의 아내-부르군트의 공주 크로테 킬리스, 가톨릭 신자-의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대승을 거두고 2년 후인 498년에 그의 부하 3,000명과 함께 랭스에서 세례를 받고 로마교로 개종했지요. 이 사건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만큼 교권로마를 신장시키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게르만 민족들은 거의 다 아리우스파의 교도들로서 로마를 둘러 있었기 때문에 로마교의 처지가 어려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법령이 제 때에 실천될 수 없었던 것도 아리우스파 게르만족인 헤롤리족과 동고트족이 차례로 로마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이미 공부했지요. 이러 정세에 가장 강력한 게르만족인 프랑크족의 뛰어난 군주가 아리우스파가 아닌 로마교로 개종한 것은, 로마교가 정치적 종교적 기반을 튼튼히 세울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개종 후 그는 507년에 최종적으로 르아르 남쪽에 있는 갈리아 지역의 강력한 서고트(동, 서고트 연합?)족과 부이에(Vouille)에서 대접전을 벌리고 알라릭(Alaric)의 고트족을 완전히 격파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508년에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로부터 명예 집정관 기장을 수여받고 로마교 수호의 선봉장이 됨으로 “멸망의 미운 물건” 곧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세력을 세우게 될 기초를 튼튼히 한 것이입니다(기독교 대백과 사전 15권, 125 참조). “어쨌든 클로비스의 개종은 대성공이었다. 첫째, 그들이 실행하는 정복 전쟁은 모두 아리우스파의 이단을 넘어뜨리기위한(거룩한 싸움)이 되었다”고 삼성출판사 간 대세계의 역사 5권, 3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멸망의 미운 물건이 확실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이고 이중적으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확인시킨 것입니다.

10. 그렇게 되었군요. 그럼 또 1335일은 무엇입니까?

답: 1335일도 마지막 때와 관련된 연대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다려 1335일을 지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지요. 1335일은 1290일보다 45일이 긴 기간입니다. 1260일과 1290일의 끝인 1798년부터 45년이 지나면 1843년이 됩니다. 이 해를 지나서 생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해는 2300주야가 시작되는 1844년의 바로 전 해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성소정결 기별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어서 성소가 회복되고 타미드가 회복되며 진리가 성경적으로 회복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을 것이며 이때에 영원한 복음을 확인하고 바벨론의 실체를 확인하며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으로서 올바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은 다 이 기간에 생존하고 생활하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11.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산다는 것만으로 그 복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복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강론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마지막 보증을 주시면 서 계시가 끝나네요. 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 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이요 또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영원한 왕국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은 즉시 그 영혼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끝 날에” 업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므로 업을 누릴 끝 날이 옵니다. 다니엘은 긴 세월을 포로로 잡혀간 타국에서 고향을 사모하며 지냈지요. 그가 늙은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끝 날에 그는 유대 땅이 아닌 영원한 고향에서 그의 업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도 타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곳에서 주님 뜻에 신실하면 다니엘이 누리는 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준 계시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니까! 우리에게 비친 밝은 빛으로 실족함이 없이 진리의 정로를 걷게 되었지요. 이 밝은 길에서 충성스럽게 생활하다가 “끝 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라”는 약속에 우리 모두 꼭 참여하도록 합시다. 다니엘 12장은 이와 같이 성도의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안식의 보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은 일어나시는 대군 미가엘로 표상된 궁극적 구원의 완성 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12. 감사합니다. 기도로 다니엘서 강론을 모두 끝내도록 하지요. 애청자들께서는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과 약속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끝 날에 주께서 주시는 업을 꼭 누리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구원이시오 생명이시며 영원한 보장이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